기신론이 제시한 믿음의 해석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제목에 들어 있는 기신(起信) 곧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범어로는 'sraddha', 팔리어로는 'saddha'이다. 몰랐던 사실을 알고 났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수긍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로 인한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믿음(信)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 경론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설명된다. 〈보살본업경〉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信者令心淸淨)"이라 하였고 〈구사론〉에서도 영심징정(令心澄淨)이라 하여 비슷하게 설명하였다. 〈대승의장〉에서는 "삼보 등에 대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於三寶等 淨心不疑 名信)"이라 하였다. 〈성유식론〉에는 "무엇을 믿음이라 하는가? 사실과 공덕과 능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좋아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본성으로 한다(云何爲信 於實德能 深忍樂欲 心淨爲性)" 하였다. 소개한 말들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 있는 말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심정(心淨)이다.

〈화엄경〉 '현수품'은 믿음의 공덕을 설해 놓은 품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信爲道元功德母)/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長養一切諸善法)/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을 벗어나(斷諸疑網出愛流)/ 열반의 위 없는 도를 열어 보여준다.(開示涅槃無上道)"

기신론에서의 믿음은 네 가지 믿음(四信)으로 설명되는데 첫째 근본을 믿을 것(信根本)을 먼저 밝히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근본이 진여(眞如)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즐겨 생각하는 것이 근본을 믿는 것이라 하였다. 이 근본에 대한 믿음이 확립된 다음에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믿는다.

진여는 곧 참되고 한결같은 중생의 마음이다. 동시에 이는 만물의 근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마음에 의해 의식되고 대상화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생의 미혹에 의해 만물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생길 뿐 근본에 돌아가면 이러한 차별의식은 저절로 소멸된다.

원효 스님은 이 진여가 중생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본이라 한다 하였다. 삼보의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信, 이해로 의심이 사라진 상태

근본이 眞如임을 아는 게 첫걸음

부처님을 믿는 자로서의 태도는 우선 진여의 마음을 회복한 부처가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서 항상 친절히 가까이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며, 착한 마음씨를 일으켜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기를 바라야 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실천하면 큰 이익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언제나 덕을 베푸는 행위인 바라밀다의 실천을 염원해야 한다.

그리고 승가(sangha),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바른 수행을 한다고 믿어야 한다. 승보는 부처님 외에 보살들도 이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본래 참모습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원효는 그의 기신론 소에서 믿는다는 것을 진여의 이법(理法)을 두고 체대(體大), 상대(相大), 용대(用大)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체(體)는 진여자체의 이법으로 현상계 배후의 본체계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로 중생의 마음이 부처라는 등식을 세울 때의 심불(心佛)의 자리이다. 상대라는 것은 이법이 갖추고 있는 본성의 공덕이 중생을 훈습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상대가 훈습함으로써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에 무궁한 공덕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 작용에 의해 일체의 선근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삼대의 믿음에 의해 무상도(無上道)에 이를 수 있다하였다.

"중생 대신해 이 몸이 고통 받으리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㊾몸을 버린다는 것은

捨陰受陰品第十一(사음수음품제십일)

阿羅漢捨後邊身得涅槃樂。不及菩薩為眾生捨身時樂。阿羅漢得解脫。不如菩薩為眾生故受身時樂。菩薩生念我以不取涅槃為眾生故得受是身。是最為妙。菩薩念言。我捨身命用施。復更受身不入解脫。是為最勝。我樂聞如來濟度眾生功德。我得救眾生悲心氣味不取涅槃。甚愛樂此事。菩薩為眾生捨身施時。雖不證涅槃勝得涅槃者。以不得為眾生捨身氣味故。菩薩受是陰身極是大苦。如為眾生捨身時樂等無有異。世間凡人為貧窮病苦之所纏逼。不能捨離樂欲捨身。眾生厭患陰身不能救濟者欲速入涅槃。菩薩思惟涅槃甚樂。生死陰身極為大苦。我當代一切眾生受此陰身之苦使得解脫。阿羅漢身盡佛亦身盡。身盡雖同不能救濟。佛滅身為善。(아라한사후변신득열반락。불급보살위중생사신시락。아라한득해탈。불여보살위중생고수신시락。보살생념아이불취열반위중생고득수시신。시최위묘。보살념언。아사신명용시。부갱수신불입해탈。시위최승。아락문여래제도중생공덕。아득구중생비심기미불취열반。심애락차사。보살위중생사신시시。수부증열반승득열반자。이부득위중생사신기미고。보살수시음신극시대고。여위중생사신시락등무유이。세간범인위빈궁병고지소전핍。불능사리락욕사신。중생염환음신불능구제자욕속입열반。보살사유열반심락。생사음신극위대고。아당대일체중생수차음신지고사득해탈。아라한신진불역신진。신진수동불능구제。불멸신위선。)

번역

몸을 버리고, 몸을 받는 것에 대한 품 제 십일

아라한이 후에 일체의 몸을 버리고 열반락을 얻는 것이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몸을 희사할 때의 즐거움에는 미치지 못하며, 아라한이 해탈을 얻어도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몸을 받을 때 즐거움만 같지 못합니다.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반을 취하지 않으리니 중생을 위하여 이 몸을 얻었음이라. 이것이 가장 오묘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몸과 생명을 희사하고 보시로 쓰려니와 다시 몸을 받아도 해탈에 들지 않으리니, 이것이 가장 오묘한 것이다. 내가 여래의 중생 제도하는 공덕을 즐거이 들으리니, 내가 중생을 구제하려 자비심의 기운으로 열반을 취하지 않으리라. 이 일이 깊은 사랑의 즐거움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몸을 희사하여 베풀 때 비록 열반을 얻지 못해도 수승한 열반을 얻은 것입니다.

열반을 얻지 못했어도 중생을 위하여 몸을 희사한 기운과 맛 때문입니다. 보살이 오음(五陰) 몸을 받는 것은 극히 큰 고통이지만 중생을 위하여 몸을 희사할 때의 즐거움 등과 다를 바 없이 여깁니다. 세상의 범부들은 빈궁과 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에 얽매여도 욕락 때문에 몸을 버리지 못합니다. 중생은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싫어하여 구제하지 못하면서 속히 열반에는 들어가려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열반은 심히 즐겁지만 생사의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심히 고통스럽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이 몸의 고통을 받고 해탈을 얻게 하리라" 합니다. 아라한의 몸도 사라지며 부처님의 몸도 사라집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은 같고 구제할 수 없지만, 부처님은 몸이 사라지는 것을 선으로 삼습니다.

해설

범부나 아라한이나 부처님조차도 오음(五陰)으로 이루어진 몸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어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생은 애욕으로 허망한 몸을 붙잡으려 하지만 보살이나 부처님은 이 허망한 몸을 선(善)을 이루는데 쓸 뿐이다. 그래서 열반보다는 차라리 중생의 고통스런 몸을 선택한다. 그래야 또 베풀 수 있을 테니까. 몸과 목숨을 흙덩이쯤으로 여기니 무에 아까우랴. 범부 중생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떳떳하게 당당하게

까마득한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문화재 보유 사찰에 공문을 보냈는데 기관장이 사찰을 방문 시 사찰 주지는 주차장까지 영접하고 떠나는 기관장한테 사찰측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는 소양댐 부근의 청평사 주지였고 불교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머물 때였다. 아마도 1976년에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얼토당토 않는 공문이었다. 당연히 도청을 방문해 논리적으로 따지며 도지사의 사과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당시 불교신문에는 톱기사로 사설까지 동원되었고 강원도청을 질타하는 여론이 TV와 라디오, 일반신문에도 큼직하게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그런데 까마득한 옛날이야기가 그 색깔과 무게만 다를 뿐 일부이긴 하나 아직도 부끄러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원칙에 충실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조어장부'의 뜻에 부끄럽지 말아야

이번에는 중앙정부나 도청이 아닌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관장을 대하는 태도와 몸짓이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않는 부끄러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미 앞부분에서 밝혔듯이 지극히 일부의 사찰 주지에만 한정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운치 않은 어둠의 그림자는 현실 속에서 불가사리처럼 죽지 않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어느 본사 주지 스님과 함께 동남아를 자유여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출국 전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본사 주지 스님이 면세점에 잠시 다녀온다더니 몽블랑 만년필을 두 개나 사서 보여 주었다. "하나는 내게 주는거냐"고 물었더니 두 개다 도청과 군청의 공무원에게 줄 선물이라는 엉뚱한 대답이다. 큰 건물을 사찰에 새로 신축하게 되었는데 큰 힘이 되어준 도청과 군청의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몽블랑 만년필을 사게 되었다는 징그러운 설명이었다. 몽블랑 만년필 한 개에 면세 가격으로 미국돈 700달러라니, 기가차고 말문이 막힐 만큼 더러운 짓을 본사 주지는 음흉스럽게 내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궤도를 이탈하면 지저분하게 더럽게 망가진다며 승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으면 주지 감투 내려놓으라고 질타했었다. 그는 머쓱해진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품격도 인격도 내팽개치며 현실 타협에 머무르는 자가 어디 그 본사 주지뿐이겠는가?

자, 이번엔 사자암 주지 이야기를 해야겠다. 사자암에는 모노레일이 새 것으로 설치돼 있는데 도의원 세 분이 5,000만원을 마련해 줘 설치하였다. 언젠가 도지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지사님이 퇴근 후 사자암에 가려하는데 죄송하지만 지사님이 모노레일을 탈수 있느냐는 전화였다. 나의 대답은 걸어서 오라는 것이었고 지사님이 몹시 감기를 앓고 있으니 모노레일을 타게 해달라는 거듭된 간청이었지만 나의 대답 "그럼 감기 나은 후 그때 걸어서 오라"는 단호한 거절은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후 시청의 부시장이 전화로 설명했다. 그는 불교신도였고 도청의 문화체육국장을 거친 후 시청의 부시장으로 온 모범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걸어서 오라는 것, 몸이 불편하면 다음에 오라는 것이었다.

사자암 주지는 시장과 국회의원을 시내에서 만나지 않는다. 만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전화해 사자암에서 된장찌개로 식사하거나 작설차를 마시며 사찰 불사를 원만히 해결한다. 해발 380m의 사자암에 수도를 설치하고 전기시설하며 석축 쌓고 요사채, 종각, 주지실 등을 신축하고 주변 정리하는데 정부 돈 25억원 이상으로 마무리했다. 신도 도움 없이 권선문 없이 크고 작은 일을 수월하게 말끔하게 처리했다. 공무원에게 껌 한 개 선물한 바 없고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봉지커피 한 개 받은 바 없다.

원칙을 지키고 근본에 충실하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 감추고 속이는 것이 없으면 넉넉하고 여유로운 법이다. 법당에서 삼계(三界)의 큰 스승이요 사생(四生)의 어버이임을 외치지 말 일이다. 여래십호(如來十號) 중 하나인 조어장부(調御丈夫)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 일이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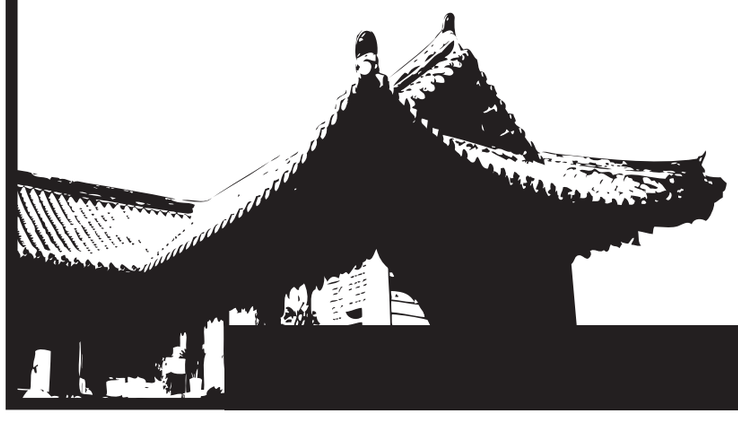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